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112천 km ²	G D P	188억 달러 (2013년)
인구	8.1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2,323 달러 (2013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단일공화제)	통화단위	Lempira(La)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20.5 (2013년)

- 1821년 9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온두라스는 중미 카리브연안에 위치하여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농업이 GDP의 14.0%(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전통적 농업국가이나,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보세가공업 장려 정책으로 커피, 바나나와 함께 의류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음. 그러나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기계장비,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 높은 빈부격차와 빈곤율, 치안불안(피살률 세계 1위) 등은 온두라스 내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함.
- 온두라스는 경제중심 실리외교를 추구하며, 중미통합체제(SICA) 가입, 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 체결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f
경제성장률	3.7	3.8	3.9	2.6	3.0
재정수지 / GDP	-2.8	-2.8	-4.2	-7.4	-6.3
소비자물가상승률	4.7	6.8	5.2	5.2	5.5

자료: IMF.

□ 미국 경기 상승세, 커피 생산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 3.0%까지 상승할 전망

- 온두라스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수출의 34.5%, 수입의 44.3%를 차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경기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음.

* GDP 구성(2013년): 소비 79.5%, 정부지출 16.4%, 투자 26.4%, 수출 51.5%, 수입 73.8%

- 2012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 군부 쿠데타('09년)로 중단되었던 대외원조의 재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9%까지 회복되었으나, 2013년에는 커피녹병(Leaf-rust disease)*에 따른 커피 생산 부진으로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곰팡이균에 의해 커피 잎이 시들어버리는 현상으로 2013년 중미 지역 커피생산에 큰 타격을 입힘

- 2014년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정부지출 축소가 예상되나, 미국의 경기 상승세, 커피 생산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0%로 상승할 전망이다.

□ 세계 개혁을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6.3%까지 축소될 전망

- 온두라스는 낮은 소득 수준, 취약한 세수 기반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2%를 기록함.

- 온두라스 정부의 재정수지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및 해외차관 도입 등으로 공공채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채무(공공채무의 38.9%)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아 비용부담이 큼.

* GDP 대비 공공채무 비중: 2011년 32.5%, 2012년 34.8%, 2013년 43.4%

- 2013년에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부지출 확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7.4%까지 증가함.
- 2014년에는 부가가치세(12%→15%) 및 연료 수입세 인상, 면세대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혁안(2013년 11월 국회 승인)의 발효, 세무 행정 강화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3%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 **세금인상에 따른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5.5%로 증가**

- 온두라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과 수입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함. 2012년에는 고정환율제에서 크롤링 페그(Crawling Peg)제¹⁾로의 전환에 따른 렘피라(La)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를 기록함.
- 2013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에 따른 렘피라화 가치 하락 지속에도 국내 소비 둔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세금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자연재해 및 환경적 위험 노출로 자연재해 취약국 1위 기록**

- 온두라스는 카리브 해의 주요 태풍 경로에 위치하여 태풍 피해가 잦으며, 지진, 화산활동 역시 발생하는 등 각종 자연재해 및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국제 환경단체인 GermanWatch의 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세계 1위의 자연재해 취약국으로 꼽힘.

□ **관료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만연**

- 온두라스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 조항을 갖추고 있으나, 관료와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만연함. 이는 관료주의적 정책(20.1%)에 이어 온두라스 기업 환경 애로요인 2순위(18.0%)로 지적됨.

1)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 또는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단기적으로 고정된 기준 환율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전에 정해진 환율수준에 수렴하도록 기준환율을 주기적으로 미세조정하는 제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도 온두라스는 조사대상 177개국 중 140위로, 과테말라(123위), 니카라과(127위) 등 주변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넓은 국토 면적 및 천연 자원 보유

- 온두라스의 국토면적은 112천 km²로 중미 국가 중 니카라과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납, 아연, 금, 은, 구리 등의 광물자원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으나,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잠재력이 높음.
- 온두라스 정부는 2013년 광업법 개정 이후 2014년 3월에는 광물개발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280개 프로젝트에 대해 3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밝힘.

□ 섬유,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보세가공수출(Maquiladora) 발달

- 온두라스 정부는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지대법(ZOLI), 수출가공 산업단지법(ZIP) 제정 등 보세가공수출업을 장려하였으며, 고급 기술력과 북미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에 힘입어 동 산업은 온두라스의 외화·고용·투자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부상함.
- 그러나 치안 불안, 비효율적 행정절차, 높은 임금상승률 등으로 온두라스 내의 임가공업체가 인접국인 니카라과 등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해외투자 유치에 위한 우호적 시장환경 조성으로 FDI 확대 추세

- 온두라스는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 허용(통신, 전력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사전허가 요구), 정부 발주사업 참여시 현지기업 지분율(51%) 조건 철폐,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 시장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함.
- 2013년 FDI 유입액은 1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0.1% 확대됨. 산업별로는 통신(33.9%), 마킬라(16.3%), 제조(14.4%) 순으로 높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국가별로는 멕시코(25.1%), 미국(12.0%), 캐나다(10.8%)순임.

- 2014년 1월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파트타임직 고용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5월에는 외국인투자 및 무역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인 "Pro-Honduras"를 시행함.
- 다만, 2014년부터 과세대상 소득이 백만 렘피라 이상인 경우 사회공헌세 5%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은 외국인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기업 개혁 등 IMF 권고사항 준수 노력으로 신규차관 도입 추진

- 2010년 10월 온두라스는 IMF와 18개월간 2억 달러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년 3월 만료됨. 온두라스 정부는 신규차관 도입을 위해 IMF 권고사항인 거시경제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중임.
- 온두라스 정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 방안으로 세제개혁과 더불어 전력청(ENEE), 주정부 산하 통신사(Hondutel) 등 주요 적자 공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실시함.
- IMF는 동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14년 하반기 신규 차관공여에 관한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f
경 상 수 지	-682	-1,408	-1,587	-1,650	-1,456
경 상 수 지 / G D P	-4.3	-8.0	-8.6	-8.8	-7.4
상 품 수 지	-2,796	-3,194	-3,248	-3,204	-3,276
수 출	6,111	7,800	7,931	7,695	8,193
수 입	8,907	10,994	11,179	10,899	11,469
외 환 보 유 액	2,671	2,750	2,495	2,982	2,927
총 외 채 잔 액	4,340	4,387	4,987	6,559	7,346
총 외 채 잔 액 / G D P	27.5	24.9	27.0	35.4	37.9
D . S . R .	7.7	11.4	9.5	11.5	12.7

자료: OECD, EIU.

□ 국제유가 상승으로 2014년 상품수지 적자 32.7억 달러로 확대 전망

- 온두라스는 의류, 커피, 바나나 수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기계 및 운송장비, 원자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상품수지 적자는 32.5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커피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위축,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수입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32.0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14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32.8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확대로 GDP 대비 경상적자 축소

- 해외 이주 노동자의 본국 송금, 국제기구 원조 등을 통한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 서비스, 소득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2012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8.6%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치안 불안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외국인투자자들의 과실송금 및 외채이자 상환액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8.8%까지 확대됨.
- 2014년에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확대를 통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축소된 7.4%를 기록할 전망이다.

□ 쌍둥이 적자 지속,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외환보유액 축소 전망

- 2012년 IMF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SBA) 만료,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대외지급비용 증가로 2012년 외환보유액은 25.0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2.6배)를 기록함.
- 2013년에는 3월(금리 7.50%, 만기 2024년)과 12월(금리 8.75%, 만기 2020년)에 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Eurobond) 발행(총 10억 달러)에 성공하면서 외환보유액이 29.8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3.1배)까지 확대됨.
 - 2013년 3월 발행된 유로본드의 경우 온두라스 최초의 국제채권이며, 동국의 낮은 국제신인도로 여타 중미 국가들의 국제채권 금리(평균 5.2%)에 비해 높은 금리가 책정됨.
- 2014년에는 쌍둥이 적자 지속,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3.0배 수준인 29.3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3년 11월 국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과반의석 확보는 실패
 - 2013년 11월 올란도(Juan Orlando Hernandez)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당(PN)이 재집권에 성공함.
 - 그러나 국민당이 국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48/128석)하고 야당인 자유재건당(LIBRE)과 자유당(PL)이 각각 37석과 27석을 차지하면서 집권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소득 불평등과 빈곤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온두라스의 지니계수는 약 0.6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빈곤층 비중이 64.5%(농촌 68.5%, 도시 60.4%)로 높아 소득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심각함.
 - 한편, 온두라스의 실업률은 2010년 5.2%까지 확대되었으나, 2013년 4.5%를 기록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세계 1위의 피살률 기록 등 치안불안 심각
 - 온두라스의 피살률(Murder rate)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3명으로 세계 1위이며 특히 온두라스 서북부 공업도시인 San Pedro Sula 지역의 피살률은 10만명당 16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꼽힘.
 - 북남미간 마약거래의 주된 운송경로가 카리브해에서 중미·멕시코로 변경된 것이 온두라스 범죄율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온두라스의 범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GDP의 10%인 약 9억 달러에 이룸.
 - 온두라스 정부는 범죄예방, 치안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경찰특공대 모집 등을 추진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3. 국제관계

□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관계 강화 노력

- 미국은 온두라스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과 치안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온두라스는 중미-EU 제휴협정(정치, 개발협력 및 FTA에 관한 포괄협정), 캐나다와 양자간 FTA(2014년 10월 발효, 자유화율 96%) 등 여타 선진국과의 관계강화도 추진하고 있음.

□ 경제협력 등으로 역내 국가들과도 우호적 관계 유지

- 온두라스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상품, 서비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자유무역 지대(Northern Triangle) 결성, 관세동맹인 SICA 참여 등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SICA는 온두라스와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가 참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석유, 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95.7% 품목의 관세를 통일하기로 결정함.
- 다만, 마약 및 폭력 문제에 대한 역내 공동대응은 각국 정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미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황태도

□ 재정수지 악화로 외채 증가 추세

- 온두라스 채무구제 수혜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2012년 49억 달러, 2013년 66억 달러로 외채가 급증하고 있으나, 양허성 차관 비중이 높아 단기 외채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각각 17.1%, 11.5%에 불과함.
- 온두라스는 고채무빈곤국 채무구제제도(HIPC Initiative)(2005년 졸업) 및 다자은행 채무구제(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를 통해 외채가 탕감, 리스케줄링됨.
- 2014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총 5.2억 달러(단기 1.0억 달러, 중장기 4.2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40만 달러(리스케줄링이 이루어진 1990년 이후 연체금액은 없음)로 전체의 0.5%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3.10)	6등급	(2012. 6)
S&P	B	(2013. 8)	B+	(2012. 6)
Moody's	B3	(2014. 2)	B2	(2013. 2)

* Fitch는 동국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하지 않음.

- OECD는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 온두라스에 대해 2006년까지 최저 등급인 7등급을 부여하였으나, 개선된 경제 및 정치적 여건을 고려하여 2007년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13년 8월)와 Moody's('14년 2월)는 치안문제 지속,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외채 누적 등으로 온두라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각각 B, B3로 한 단계 하향조정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온두라스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37	156	124	전선, 자동차, 고무제품
수 입	141	84	54	기호식품, 아연광, 알루미늄
합 계	278	240	178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수립:** 1962년 4월 1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70), 투자보장협정('00),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00), 경제 과학기술협정('10)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양국간 무역규모는 2011년 2.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3년 1.8억 달러를 시현함.
 - 특히 온두라스로부터의 수입 품목 중 커피를 포함한 기호식품 수입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35.4%, 46.7%로 감소함
- 2014년 3월 말 누계기준 대 온두라스 직접투자 규모는 총 47건(신규법인 수), 1억 1,363만 달러(투자금액)이며, 특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억 255만 달러로 90.2%를 차지함. 제조업종은 대부분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업.

V. 종합의견

- 온두라스는 2013년 커피녹병에 따른 커피 생산량 급감으로 경제성장률이 2.6%까지 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경기 상승세, 커피 생산 회복 등으로 3%대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2013년 선거를 앞둔 정부지출 확대, 적자 공기업 보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7.4%로 악화되었으나, IMF 차관도입을 위한 세제개혁 등으로 2014년 동 비율은 6.3%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3년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당이 국회 과반의석 차지에 실패하였으나, 이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온두라스 정부의 재정악화로 GDP 대비 외채비율이 증가추세이나,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적자 누적,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하여 온두라스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D1으로 부여코자 함.

조사역 김지용 (☎02-3779-5716)
E-mail: jyk@koreaexim.go.kr